

구례서 전국 요가인 대화합 한마당 열린다

지리산 대화염사 '요가대축제' 내달 10일 각황전 앞마당 일원 홈페이지서 500명 선착순 신청 사찰음식 요리 체험코너 운영도



지리산 대화염사가 제9회 UN세계요가의 날을 맞아 다음달 10일 지리산 대화염사 요가대축제를 개최한다. /화염사 제공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본사 지리산 대화염사가 제9회 UN세계요가의 날 기념 및 2023 제3회 지리산 대화염사 요가대축제를 오는 6월 10일 화염사 각황전 앞마당에서 연다. 이번 요가대축제의 주제는 '화염, 다시 천년을 세우다'로 하고 전국의 요가인들과 불자들, 비불자들에게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다양한 것들을 수용 하자는 대화합의 의미를 표현하게 되며 화염성

지 화염사의 불교문화를 함께 호흡하는 시간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가 대상은 신청자 500명을 화염사 홈페이지서 선착순 모집하며 인도 대사관, 인도문화원 요가 시범팀의 요가 프로토타입 시범과 대한요가

회 요가 시범팀의 해금과 가야금 연주에 맞춘 시범은 요가대회 참석자들에게 프로토타입의 우수성을 선보인다. 특별 순서로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지인 선수가 참석해 리듬체조를 시연, 이번 요가행사의 백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염사는 예년과 같이 해외 이주민과 청소년을 초청해 공존과 상생, 위안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에스토니아 출신 마리엘이 홍보대사로 참석해 자리를 빛낸다. 여기에 덕문 주지스님은 올해는 참가자들에게 화염사의 자랑이기도 한 사찰음식 명장의 사찰요리 체험 코너를 운영, 코로나 이후 첫 대면 행사의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한다. 이번 요가대축제 참석자들에게는 요가매트, 티셔츠, 에코백, 고급양산을 일괄 지급되며 식전 행사로 요가대회 자세 사진찍기대회를 마련하고 프랑스와즈 화장품과 샴푸를 상품으로 내건다. 제9회 UN 세계요가의 날 기념 및 2023 제3회 지리산대화염사 요가대회는 지리산대화염사가 주최하고 전남도요가회, 구례군체육회, 화염사템플스테이, 화염사홍보기획위원회가 주관하며 전남도, 구례군, 대한체육회가 재정 후원을 맡는다. /구례=손석봉 기자

고흥, 농산어촌개발 추진 40억 투입 정주여건 개선

고흥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40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맞춤형 생활밀착형 SOC 시설을 확충해 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고흥군은 어촌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 사업이 절실하다고 보고 지난해에 이어 공모 선정에 온 힘을 기울여 왔다. 지역주민·전문가·행정협력이 협력한 가운데 주민회의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재수립해 심사위원들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다한 결과 '두원면 어촌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최종 선정되는 결실을 보게 됐다. 고흥군은 이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두원면 민회관·중앙경로당 리모델링 ▲면 소재지 내 보차도 개선(480m) ▲대천 해수욕장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흥=진중언 기자

순천,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연다

내달 2~7일 순천만가든마켓 가든쇼·반려식물 키트존 등

순천시는 오는 6월 2일부터 7일까지 고부가 가지 정원산업 모델을 제시하고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2023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순천만가든마켓에서 열린다고 30일 밝혔다.

'정원,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산림청과 전남도가 주최하고 순천시가 주관한다. 개막식은 6월 2일 오후 7시에 오전그린광장에서 열리며 식전공연으로 요요미, 오페라갈라쇼가, 공식 축하공연에는 에일리, 다비치, 신유 등이 출연하며 가드닝 패션쇼도 함께 즐길 수 있다. 6일간 열리는 박람회는 정원식물과 정원물품

을 전시 판매하는 정원산업전과 '정원, 옛것에 스며들다'라는 주제로 정원 작가가 조성한 코리아가든쇼, 대형 캐릭터인 토피어리정원, 참여업체 물품을 활용한 테라스정원, 전국 반려식물 키트 관련 업체가 참여하고 출품하는 반려식물 키트존 등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질 예정이다. 정원소재를 활용한 다육정원 만들기, 곱바반 만들기, 자연물 공예 등 체험행사를 운영해 정

원문화를 확산하고 길거리공연, 마술쇼, 현악 공연 등 상설공연을 기획해 방문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정원산업박람회장인 순천만가든마켓 인근에 지난 4월 1일 개장 이후 연일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이 위치하고 있어 두 박람회를 동시에 관람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정원산업박람회를 통해 정원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정원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원산업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하며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순천=박경식 기자

광양, 저소득자녀 장학금 모집 학업 의욕 고취...내달 5일부터

광양시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 의욕 고취를 위해 오는 6월 5일부터 6월 16일까지 2주간 2023년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장학금 지원 인원은 선발 신청자 중 적격자 전원을 선발해 1인당 년 40만원을 2회에 나눠 지급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중학생 28명, 고등학생 16명 총 44명을 선발지원했다. 신청요건은 학생의 부모 모두 올해 1월 1일부터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저소득주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의 자녀 가운데 중·고등학생(인문계고는 지역 내 학교에 포함)으로 직전 학기 학업성적 또는 입학성적이 재적 학년 학생 수의 100분의 60 이내인 학생, 예·체능 분야에 도 단위 이상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특기자에 한한다. 신청서는 학교장 및 읍면동사무소의 공동 추천을 통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이·통장 자녀 장학금, 인제 육성 장학금 등 타 기관·단체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는 신청자에서 제외한다. 시는 매년 저소득주민 자녀의 학업 정진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성진 기자

보성, '평생교육 디저트 실무과정' 성료

보성군은 최근 보성군농업기술센터 내 식품 가공실에서 '평생교육 디저트 실무 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평생교육 디저트 실무 과정'은 보성군과 순천제일대가 함께 마련했으며, 교육을 이수한 수강생은 한국푸드아트협회의 디저트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한다. 이번 교육은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과제빵 분야 취·창업 준비하는 귀농·귀촌인 21명을 모집해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10회에 걸쳐 제과제빵 기술을 교육했다. 이 과정은 제빵에 대한 기초이론과 실습 교육

까지 이뤄져 매년 제과제빵에 관심 있는 귀농·귀촌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2023년 보성세계차엑스포' 기간에 수강생들과 순천제일대 커피 바리스타 & 외식 조리학과 정은성 교수가 자원봉사자로서 평생학습 체험 부스를 운영해 평생교육 홍보 활동을 펼쳤다. 수강생 이성수씨는 "강원도에서 31년간 군인으로 살아왔는데 퇴직 후 남도의 매력에 빠져 매우 행복하다"며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보성의 자연과 친절한 보성 주민들에게 반해 보성으로 귀촌을 결심했는데 디저트 실무 과정 프로그램 또한 결정에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보성=백종두 기자



보성군이 최근 보성군농업기술센터 내 식품가공실에서 '평생교육 디저트 실무 과정'을 마무리했다. /보성군 제공

클릭! 고향 속으로



동여수MG새마을금고, 쌀·후원금 전달

동여수MG새마을금고가 최근 여수시 동문동주민센터에서 '사랑의 쌀 나눔' 및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동여수MG새마을금고는 경로당 9개소에 백미(10kg) 18포와 연료비 450만 원, 통장단협의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각 200만 원을 전달했다.

윤진두 동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동여수MG새마을금고의 꾸준한 후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홍현 동문동장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동에서도 경로당에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조성면 '마음 숲 마을 배움터', 수제청 기탁

보성군은 최근 조성면 '마음 숲 마을 배움터'에서 사랑의 딸기 수제청 60개를 조성면 경로당 47개소와 관내 취약계층에게 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제청 만들기'는 마음 숲 마을 배움터 '마을 교육 공동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조성면 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등 35명이

참여했다. 마음 숲 마을 배움터 추양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마을배움터 아이들이 나눔을 배우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진석 조성면장은 "정성으로 만든 딸기 수제청을 기부해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보성=백종두 기자



옥룡면 맞춤형 봉사단, 취약층 주거개선

광양시 옥룡면은 최근 옥룡면 개천마을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위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자는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오래된 한옥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아 집안 환경을 돌보기 어려웠다. 이번 활동은 옥룡면 맞춤형 봉사단

10여 명이 참여해 오래된 페이퍼와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마당에 방치된 쓰레기를 치우는 등 쾌적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또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연계해 간단한 전기점검과 노후된 도배·장판을 교체하고 어르신이 청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우성진 기자